

科學技術學會 活動 略史 ①

韓國物理學會 篇

○. 緒 言

戰時臨時首都 釜山에 자리잡은 國立서울大學 校 本部에서 創立總會를 가졌던 韓國物理學會도 어느새 지난 12月 7日로 만27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崔奎南, 朴哲在, 權寧大 諸博士를 위시한 歷代會長團의 힘찬 指導力과 꾸준한 努力에 의해서 國內에서도 으뜸가는 알차고도 建實한 學會로 生長하였다. 그동안 會員數는 創立當時의 34名에서 現在의 約 1,000名으로 늘었고, 講演이나 發表論文 하나없던 當時에 比해 年平均 100篇의 講演과 論文이 發表되기에 이르렀다.

이 27年동안 國內物理學界의 發展相을 좀더 소상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創立當時 國內에는 9個 物理學科(그中 6個는 1952年에 設立)였던 것이 現在는 약 34個學科로 늘었으며 1952年 가을까지 累計73名이었던 物理學專攻 學士의 數는 무려 6,750名으로 90倍나 늘었다. 또 當時 2名뿐이었던 物理學專攻 博士數는 現在 約 250名 程度로 100倍以上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이 지나간 27年間의 發展은 눈부신 發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物理學會의 發展을 크게 8期로 나누어 그 發展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創始期(1952~1954)

物理學會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解放直後로 거슬러 올라간다. 當時 京城帝國大學 理工學部에 있었던 物理學科는 解放直後 京城大學校(1945), 서울大學校(1946)의 物理學科로 이름이 바뀌었

고 또 延禧專門의 數物學科는 延禧大學校 物理 氣象學科(1950年부터 物理學科)로 再出甦을 하게 되자 意慾의인 사람은 하루速히 學問의 中心으로서의 物理學會를 組織하여야겠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當時 物理學을 專攻하는 사람의 數는 10名内外였고, 그나마도 大部分의 사람들은 日帝때 中學教育에 從事한 經驗뿐 이었던 만큼 갑자기 學會를 만들어 보았자 어떻게 하루아침에 學究의 活動을 시작할 수 있느냐, 좀더 시기를 기다리자 하는 時期尚早論者도 있고 해서 많이 討論도 하던 끝에 가까스로 여론의 統一을 보아 于先 物理學會를 單獨으로 組織하느니 보다 數學會와 合同하여 數物學會를 만들 것을 決意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崔允植教授를 會長으로 數物學會가 1946年에 組織되어 數回의 講演會등을 열었다. 그러나 그 以外에는 別 큰 活動도 못한채 6·25사변을 맞게 된 것이다.

피난수도 釜山에 옮겨와 戰爭의 情勢도 좀 安定돼가자, 當時 서울大學校 總長이신 崔奎南박사를 中心으로 數物學會를 떠나 새로이 物理學會를 創立하게 되었던 것이다. 即 1952年 11月부터 數차례의 準備委員會를 거친후 1952年 12月 7日 下午 2時 서울大學校 本部에서 韓國物理學會 創立總會가 開催되어 初代會長에 崔奎南博士, 副會長에 朴哲在博士를 選出하고, 21名의 運營委員과 9名의 常任委員을 選出하여 總務·編輯·事業·財務를 合同委任시키기로 하므로서 韓國物理學會는 歷史的인 出帆을 한 것이다.

組織은 되었으나 物理學會는 그후 別 活動을 할 수가 없었다. 當時 아직 戰時여서 個人的 生活뿐만 아니라 모든 點에서 難關이 많았고, 學術面에서도 研究는 거의 할 수 없었으므로 學會의 活動도 自然 不振하였다. 따라서 1953年 봄에 釜山에서 열린 것을 除外하고는 이렇다할 活動은 할 수 없었다.

○ 復興期(1955~1958)

休戰이 成立되고, 1953年 여름 서울 還都가 이루어지자 한참동안은 복구作業에 바빴다. 學會도 그 例外가 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55年 가을이 되자 좀 安定이 되어 다시 學會를 열어 보자는 움직임이 있어 이해 11月 10日 第3回 定期總會가 召集되어 物理學會가 다시 活動을 開始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當時 學術的으로는 아직도 이렇다 할 改善도 있을 수 없었으므로, 이 總會에서는 特히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情報 交換이 最重要事項으로 浮刻되었다. 그리하여 各學校間의 親睦과 交流를 위해 회원명부가 마련되고, 또 全國大學 物理學科 對抗 親善排球 大會가 第4回 定期總會(1956年 6月 23~4日)를 계기로 열렸다.

이와같이 해서 學會의 中興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不幸하게도 1957年과 1958年의 2年 사이에는 總11名의 任員中 副會長 1名과, 常任 委員 6名이 대거 外國留學의 길을 떠나는 관계로 學會活動은 마비되어 定期總會조차 열지 못하고 다시 침체속에 빠지고 말았다.

○ 發展期(1959~1961)

오랜 沈滯속에 헤메이던 物理學會가 다시 빛을 보기 始作한 것은 1959년부터이다. 이해 6月에 열린 第5回 定期總會(표 I)에서는 會則을 바꾸어 評議員會와 幹事會를 만들었다. 각 기관(全國 各大學 物理學科나 研究所)을 代表하는 評議員은 團體會費를 納入하므로써 學會 會計에 도움을 주는 同時에 大學이나 研究所間의 交流를 꾀하였고, 幹事會는 발벗고 땀 幹事 4名을 뽑아 積極的인 學會活動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1959·1960年의 2年間에 걸친 꾸준한 努力과 준비의 결과 1961년에는 드디어 韓國 物理學會誌인 “새물리”가 創刊되었다. 이제 物理

學會도 기관지를 갖는 學會로까지 發展되었으며 이것을 媒介로 學會活動도 漸次 活潑해지기 시작했다.

○ 擴張期(1962~1967)

1961年 學會誌發刊을 발판으로 發展의 軌道에 오른 物理學會는 1962년에는 一擧에 20篇의 學術講演과 研究論文이 總會에서 發表되었으며(從前에는 4篇정도, 表 I) 學會誌 게재 解說 및 論文도 15篇(創刊號는 5篇)으로 늘어났으며, 總會도 臨時總會를 合쳐 年 2回씩 열리게 되었다. 이와같이 해서 物理學會는 1962년부터 安定된 軌道上에서 점차 달리기 시작하였고 해를 거듭함에 따라 漸次 그 勢力을 擴大해 갔다.

特히 1963년에는 慶北支部가 最初의 支部로서 誕生되었고, 곧이어 全南支部(1964), 釜山 慶南支部(1965), 忠南支部(1967)가 結成되었다. 또 1963年以來 臨時 秋季總會가 各 地方에서 열리자 1966년에는 會則을 바꾸어 秋季總會를 定期總會로 고치고 地方에서 열기로 決定을 하였다. 이동안 會員數는 1962年의 178名에서 1967년에는 723名으로 늘었고, 總會時의 講演 및 發表論文數는 69篇, “새물리” 게재 解說 및 研究論文數는 34篇으로 알찬 發展을 이룩했다. 또 1967년에는 最初로 韓國을 訪問한 Nobel 物理學賞 受賞者인 R. Hofstadter 博士를 맞이하여 盛大한 환영과 記念行事가 있었고, 이에 이어 低溫物理學의 世界的 권위인 金榮培 및 W. A. Little 博士도 來韓하는 등 物理學의 國際交流도 이루어졌다.

○ 補充期(1968~1974)

1968년부터 시작되는 이 期間에는 前期의 發展템포를 그대로 받아들여 內實을 期한 期間이다. 이 期間의 첫해인 1968년에는 오랜 宿願이었던 純英文會誌인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가 創刊되었다. 國內 100余個의 理工農醫系學會中 純英文會誌를 發刊하는 學會는 1979年 現在까지도 우리 物理學會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英文會誌의 發刊으로 우리 物理學者의 業績을 世界에 알리자는 것이다.

前期에 이어 이 期間에도 學會活動은 더욱 활발해져 年平均 80~90篇의 講演과 論文이 總會

에서 發表되기에 이르렀고 年平均 35편의 論文과 解説이 學會誌를 통해 刊載되고 있다. 또 그동안 Nobel 物理学 賞受賞者인 H. A. Bethe 教授를 위시하여 수많은 海外著名 物理學者가 韓國을 訪問하였으며 講演會나 세미나를 통해 韓國 物理學會 發展에 공헌하고 있다.

또 1969년에는 全北支部, 1970년에는 美洲支部가 結成되어 都合 6個의 支部가 結成되었다.

○ 充實期(1972~1974)

創立 20주년을 맞이하는 第25回 定期總會는 文教部長官, 科學技術處長官 및 Hofstadter 博士를 위시한 여러 국제적 물리학자 다수 참석하여 盛大히 開催되었다. 1952年 12月 7日 創立된 以來 20年間을 거치는 동안 物理學會는 905名의 會員(海外 會員 154名)을 갖는 健全한 學會로 發展하였고, 이제 더욱 더 발전 學會로 달음질 치기 시작하였다.

1972년부터 74년까지의 3年間에 걸친 이 期間은 物理學會가 對外的으로나 對內的으로 크게 그 內容을 充實하게 만든 期間이다.

例컨대 72년에는 外國으로부터 Robert A. Hofstadter, 今井功, Daudel, Ziman, 金榮培, 辛容武, 姜翼周, Katz, 朴光在, 金英一, 노만규博士가 韓國을 訪問하였고, 73년에는 閔公基, 金正旭, 정수억, 李勇榮, 최상일, Henry H. Dearman, James H. Roberts, 1974년에는 H. Y. Fan, P. J. Bray, 유만형, 광노환, 金大萬, 노원병, Yok Chen, 朴允洙, 姜大元, Benjamin W. Lee(이휘소), 南相富, Francis Ree(李會仁), 李基億, 천명기, 金錫洪, Y. M. Cho, J. C. Vienot, J. P. Huignard, S. Robin, A. Marchel 등 여러 碩學이 韓國을 訪問하여 뜻있는 講演, Symposium, Colloquium 등에 參加하였고, 우리나라 物理學者와 직접, 간접적인 유대강화를 하였다. 實로 이 期間은 발전 充實化의 時期였다.

○ 成熟期(1975~1979)

1975年 4月 26日을 期해 韓國物理學會는 새로운 歷史의 時期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제 韓國物理學會는 순수자연과학계 學會中 最初로 과학기술처로부터 社団法人체로 認可를 받아 任意團體의 狀態에서 社會法人으로 昇格되었다.

그와 同時에 外國學會와의 접촉을 더욱 더 活潑히 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78년에는 A. Salam, L.M.Lederman, 金正旭, 강경식, C. Quigg, R.L.Arnowitt, 한무영, V.de Alfaro, L.R.Sulak, E.Lohrmann, T.Kinoshita, 이원용, R.Casalbuoni, M.Bander, S.P.Rosen, J. C.Pati, F.J.Gilman, K.C.Moffeit, M.K.Gillard 등 粒子物理學界의 世界的 권위자들을 모아 “Seoul Symposium on Elementary Particle Physics in Memory of Benjamin W.Lee” 를 열어 큰 成果를 거두었다.

그리고 1978년부터 이태리 Trieste에 있는 ICTP(Inter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와 당학회가 Federation Agreement 를 체결하여 매년 會員을 파견하여 學術 교류에 이바지하는 등 큰 成果를 거두고 있다.

또 1979年 여름에는 金正旭, 윤택순, 조양래, 정수억, 이용영, 김호길 등 美國各 國立研究所 및 大學에서 활약하고 있는 韓國人 碩學을 초청하여 “加速器 導入에 관한 Symposium”을 열어 中進國 韓國의 科學界의 앞날을 위해 粒子加速器 導入의 必要性, 導入方法, 利用法 등을 놓고 일주일간 Symposium을 열어 큰 成果를 얻었다.

또 1980年度부터는 每年 故 李輝昭(Benjamin W.Lee) 博士를 紀念하는 物理學 講座를 科學財團 지원으로 열기로 하고 그 첫 해인 1980年度에는 李輝昭 博士와 절친했던 Nobel 物理学 賞 受賞者인 楊振寧(C.N.Yang) 博士를 초청하여 韓國科學院에서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① Gauge Fields ② Physics of the Magnetic Monopole ③ Very High Energy Scattering and the Shape of the Hadrons에 관한 전문강의에는 國內 많은 碩學들이 참석하고,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Forces of the Physical World라는 주제 밑에 일반강연을 세종문화회관에서 盛大히 개최 하므로써 韓國物理學은 世界무대에서 호환하게 되었다.

이제 韓國의 物理學界도 당당히 世界物理學界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研究를 해나가는 成熟期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통계로 본 한국물리학회 27년

(총회와 발표논문)

| 구 년 도 | 해 당 년 도 회 원 수 | 총회에서의 발표논문 편수 | | | | | | 새물리계재 | | JKPS계재 | | 학회지발간권수 | |
|-------------|---------------------------------|---------------|---------|---------|---------|-------------|-----------------------|--------|------------------|------------------|----------------|---------|------|
| | | 총 회 수 | 총 회 장 소 | | 논 문 편 수 | | | 해 설 | 연 구 논 문 | 연 구 논 문 | Short Notes | 새물리 | JKPS |
| | | | 춘 계 | 추 계 | 강 연 | 연 구 문 | 심 포 지 기 타 | | | | | | |
| 1952 | 34 | 1 | | 서울대 | | | | | | | | | |
| 1953 | 35 | 1 | 서울대 | | 1 | | | | | | | | |
| 1954 | | 0 | | | | | | | | | | | |
| 1955 | | 1 | 서울대 | | 2 | | | | | | | | |
| 1956 | 94 | 1 | 서울대 | | 2 | 2 | | | | | | | |
| 1957 | | 0 | | | | | | | | | | | |
| 1958 | | 0 | | | | | | | | | | | |
| 1959 | | 1 | 고려대 | | | 8 | | | | | | | |
| 1960 | | 1 | 동국대 | | 1 | 3 | | | | | | | |
| 1961 | | 1 | 성균관대 | | 1 | 3 | 5 | | | | | 1 | |
| 1962 | 178 | 2 | 연세대 | 경희대 | 6 | 14 | 8 | 7 | | | | 2 | |
| 1963 | 207 | 2 | 고려대 | 경북대 | 9 | 14 | 4 | 15 | | | | 2 | |
| 1964 | 362 | 2 | 서강대 | 전남대 | 7 | 23 | 3 | 13 | | | | 2 | |
| 1965 | 524 | 2 | 한양대 | 부산대 | 6 | 32 | 3 | 9 | | | | 2 | |
| 1966 | 594 | 2 | 중앙대 | 인하대 | 8 | 35 | 7 | 12 | | | | 2 | |
| 1967 | 723 | 2 | 이화여대 | 충남대 | 9 | 57 | 3 | 14 | 20 | | | 2 | |
| 1968 | 789 | 2 | 경희대 | 해사 | 9 | 71 | 2 | 11 | 8 | 14 | 3 | 2 | 2 |
| 1969 | 860 | 2 | 건국대 | 전북대 | 7 | 65 | 10 | 9 | 20 | 10 | 2 | 2 | 2 |
| 1970 | 708 | 2 | 서강대 | 부산대 | 17 | 59 | 12 | 9 | 11 | 10 | 1 | 4 | 2 |
| 1971 | 804 | 2 | 동국대 | 경북대 | 15 | 70 | 8 | 13 | 12 | 13 | 3 | 4 | 2 |
| 1972 | 905 | 2 | 연세대 | K I S T | 22 | 74 | 16 | 14 | 19 | 11 | 1 | 4 | 2 |
| 1973 | 721 | 2 | 서울대 | 울산공대 | 17 | 86 | 9 | 9 | 18 | 11 | 2 | 4 | 2 |
| 1974 | 789 | 2 | 고려대 | 조선대 | 23 | 92 | 14 | 15 | 18 | 18 | | 4 | 2 |
| 1975 | 837 | 2 | K I S T | 전북대 | 25 | 91 | 6 | 19 | 25 | 48 | 4 | 6 | 2 |
| 1976 | 927 | 2 | 육사 | 영남대 | 31 | 110 | | 28 | 27 | 11 | | 5 | 2 |
| 1977 | | 2 | 서울대 | 인하대 | 29 | 79 | | 7 | 27 | 9 | | 5 | 2 |
| 1978 | | 2 | 이화여대 | 표준연 | 34 | 103 | | 6 | 19 | 9 | | 4 | 2 |
| 1979 | | 2 | 과학원 | 울산공대 | 37 | 139 | | | | | | | |

